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Online Health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Elderly

장 로 사 (Rosa Chang)*

초 록

본 연구는 노인 232명(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층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적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beta=.155, p<.05$), 온라인정보원 신뢰도($\beta=.243, p<.01$), 사회적 지지($\beta=.166, p<.05$) 요인 모두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술적 요인인 디지털 역량($\beta=.244, p<.01$)과 리터러시 교육($\beta=.283, p<.01$) 요인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온라인 건강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건강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tatistically ver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sharing among 232 older adults aged 65 and abov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ealth-related factors, namely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interest,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eniors' online health information sharing. Second, all psychological factors - self-efficacy ($\beta=.155, p<.05$), trust in online information sources ($\beta=.243, p<.01$), and social support ($\beta=.166, p<.05$) - were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Third, both technical factors - digital competency ($\beta=.244, p<.01$) and literacy education ($\beta=.283, p<.01$) -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 influ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health of the senior generation and, furthermore, to bridging the digital health information gap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sharing.

키워드: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Seniors, Online Health Information, Sharing

* 승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rschang120@sewu.ac.kr)

논문접수일자 : 2025년 8월 11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8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55-77,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3.055>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한국 사회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6년에는 30.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점차 노년층의 성공적인 건강관리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주연, 2024).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의 수용 및 공유행위는 노년층의 신체적·인지적 약화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서적 지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활용능력이 높은 고령층일수록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중순, 2024; 권하나 외, 2025). 또한, 노인의 온라인 활동 빈도가 증가할수록 외로움과 우울감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otten et al., 2013).

최근 국내 학계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행위(수용, 공유, 이용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각광 받고 있다. 안순태 외(2018)는 임파워먼트는 노인의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의 인지된 이용 용이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인지된 유용성은 건강 관련 모바일 앱에 대한 태도,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의 이용 의도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이후 김현미 외(2023)는 온라인 사회적 관계, 건강정보 검증 행위는 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정보 공유 사

이를 매개하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건강정보 검증과 건강정보 공유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요인을 건강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 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건강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통해 건강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

온라인 건강정보는 방대한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큰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건강정보 공유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이에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건강정보의 공유 의도나 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먼저 박주리(2011)는 20세부터 59세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건강 지식의 공유 행동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요인(건강 지식 공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돕는 즐거움)과 시스템적 요인(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신뢰)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요인으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돕는 즐거움이, 시스템적 요인으로는 인지된 유용성과 신뢰가 인터넷 건강 지식 공유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터넷 건강 지식 공유 의도는 공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근효동(2022)은 20세부터 60세 이상까지의 연령층을 표본으로 하여 정보원 신뢰도, 건강관심도, e-헬스 리터러시와 틱톡 건강정보 이용 의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요인으로는 정보원 신뢰도, 건강관심도, e-헬스 리터러시를 선정하였으며, 검증결과에 따르면 3개의 요인 모두 틱톡 건강정보의 채택과 공유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와 건강 행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류현주(2019)는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 능력과 건강 행위와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 컴퓨터 불안,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정보 신뢰도를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태도, 건강 행위와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송지현(2019)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e-헬스 리터러시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노인의 e-헬스 리터러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추구 행동과 정(+의 관계이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추구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ang et al.(2024)은 노령층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건강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을수록 건강정보 행위 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과거의 건강정보 행위와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 정서 상태, 주변인의 권유 등은 자기효능감 형성 및 건강정보 행동의 주요 동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Zhu와 Li(2024)의 연구에서 노인은 온라인 건강정보 커뮤니티(Patient-to-Peer 플랫폼)에서 사회적 지지로서 정서적 지지가 강할수록 적극적인 상호작용(게시·댓글·재전송 등)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과 격려 등의 심리적 유대감이 고령층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및 참여 지속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관련 연구들을 활용하여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건강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더불어 노령층의 건강 증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나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오설미(2021)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디지털 정보 수준과 신기술 이용 의사의 관계를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검증결

과, 디지털 정보 수준은 신기술 이용 의사에는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술적 자기효능감 및 이용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신기술 이용 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유빈(2021)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요인을 검증하였다.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사회관계, 경제활동, 사회참여), 디지털 요인(디지털 이용능력, 디지털 이용성과, 디지털 이용태도)을 선정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학적 요인(학력), 사회학적 요인(사회참여), 디지털 요인(디지털 이용능력, 디지털 이용성, 디지털 이용태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경자(2024)는 67세부터 88세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이 노인층의 삶의 질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 SNS나 사진 공유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서 자기효능감이 함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achofner et al.(2024)은 기술적 능력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과 공유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은 교육 수준, 시청각 및 인지 기능의 저하, 디지털 접근성 부족,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불신 등은 고령층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과 공유행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노

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기술적 요인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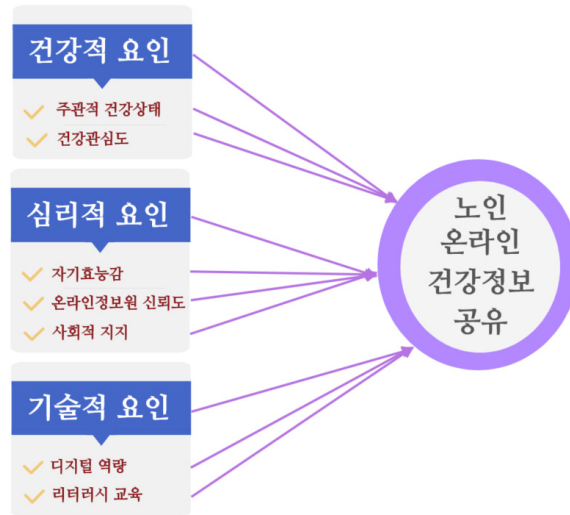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디지털 역량 및 리터러시 교육 등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의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건강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의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 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을 파악하였다.

3. 연구 설계

3장에서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변수(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설명하였고, 연구대상과 설문 구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설정한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 기술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가설

가설항목	가설내용
H.1	건강적 요인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건강적 요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건강적 요인의 건강관심도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심리적 요인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심리적 요인의 자기효능감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심리적 요인의 온라인정보원 신뢰도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심리적 요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기술적 요인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기술적 요인의 디지털 역량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기술적 요인의 리터러시 교육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연구가설(상위가설 3개, 하위가설 7개)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수(1개)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에 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로서 독립변수(7개)와 종속변

3.3 연구대상 및 설문 구성

본 연구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독립 변수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적 요인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류현주(2019) 송은지(2019) 송지현(2019)
		건강 관심도	건강관심도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건강관심도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근효동(2022) 김유성(2023) 최은지(2024)
	심리적 요인	자기 효능감	심리적 요인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자기효능감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박주리(2011) 최지영(2015) 김나은(2023) 최은지(2024) Fang et al.(2024)
		온라인 정보원 신뢰도	온라인정보원 신뢰도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온라인정보원 신뢰도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근효동(2022) 장효성(202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가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사회적 지지가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조아진(2010) 지경미(2020) 김나은(2023) Zhu & Li(2024)
	기술적 요인	디지털 역량	기술적 요인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디지털역량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지경미(2020) 오설미(2021) 박지혜(2022) 김유성(2023) 최문선(2023) 장효성(2024)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교육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리터러시교육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도 박지혜(2022) 이경자(2024) Bachofner et al.(2024)
	종속 변수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활동을 수행하는 정도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의사, 공유활동, 추천 의사 등에 대한 정도 박주리(2011) 오설미(2021) 정유빈(2021) 근효동(2022)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25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 이루어졌고, 설문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노인은 오프라인 네트워크(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 단체 채팅방, 밴드)를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노인 대상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가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나 손주

를 통해 설문조사 안내문 및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고 가족이 부모나 조부모의 온라인 설문 응답을 도와주는 방식도 활용하였다.

총 24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23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설문지의 모든 문항을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인구통계학적 문항 제외). 설문 구성

〈표 3〉 설문 문항의 구성

구분		설문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6
건강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7
	건강관심도	7
심리적 요인	자기효능감	7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7
	사회적 지지	7
기술적 요인	디지털 역량	7
	리터러시 교육	7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7
합계		62

은 크게 5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은 총 62개로 구성하였고, 설문지의 상세 구성은 〈표 3〉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서 총 6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으로서 총 4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요인별(건강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각각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설문으로서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본 연구는 SPSS 24를 사용하여 첫째, 인구통계학적 분석(Demographic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둘째,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Factor Loading ≥ 0.4 , Eigen-Value ≥ 1.0)과 신뢰도 분석(Cronbach Alpha ≥ 0.6)을 실시하

였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넷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참여대상자들(총 23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77명(33.2%), 여성 155명(66.8%)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만 65~69세가 86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70~74세 56명(24.1%), 만 75~79세 55명(23.7%), 만 80~84세 31명(13.4%)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7명(4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78명(33.6%), 대학원 졸업 35명(1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77	33.2
	여성	155	66.8
연령	만65~69세	86	37.1
	만70~74세	56	24.1
	만75~79세	55	23.7
	만80~84세	31	13.4
	만85세 이상	4	1.7
학력	초등학교 졸업	6	2.6
	중학교 졸업	16	6.9
	고등학교 졸업	78	33.6
	대학교 졸업	97	41.8
	대학원 졸업	35	15.1
가족 구성	혼자 산다	34	14.7
	본인+자녀	28	12.1
	배우자와 단둘이	108	46.6
	배우자+자녀	58	25.0
	기타	4	1.7
자녀 인원	1명	35	15.1
	2명	120	51.7
	3명	61	26.3
	4명	9	3.9
	5명 이상	7	3.0
생활수준	매우 낮다	9	3.9
	낮은 편이다	40	17.2
	보통이다	136	58.6
	높은 편이다	46	19.8
	매우 높다	1	0.4

넷째, 가족 구성은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경우가 108명(46.6%)으로 가장 높은 가족 구성원 형태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및 자녀와 사는 경우 58명(25%), 혼자 사는 경우 34명(14.7%), 본인과 자녀가 사는 경우 28명(12.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자녀 인원은 2명이 120명(51.7%)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3명이 61명(26.3%), 1명이 35명(15.1%)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생활수준은 '보통이다'가 136명(58.6%)으로 과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46명(19.8%), '낮은 편이다' 40명(17.2%) 순으로 파악되었다.

4.2 타당성 및 신뢰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가운데 한 요인인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과 종속변수

인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KMO=.863, Bartlett's $\chi^2=3744.792$ ($p=.000$), $df=21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한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의 경우 모두 7개의 관련 문항들로 구분되었으며, Eigen-Value=5.848, 설명분산이 27.846%로 나타나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건강관심도의 경우 모두 7개의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Eigen-Value=4.365, 설명분산은 20.786%로 나타나 건강관심도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모두 7개의 관련 문항들로 구분되었으며, Eigen-Value=3.219, 설명분산은 15.327%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크론바 알파(Cronbach

<표 5> 건강적 요인 및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Name of Variable	Component		
	1	2	3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5	.911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3	.902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2	.896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4	.884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7	.848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6	.833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1	.818		
건강관심도7		.865	
건강관심도4		.844	
건강관심도6		.799	
건강관심도5		.785	
건강관심도3		.595	
건강관심도1		.583	
건강관심도2		.581	
주관적 건강상태2			.792
주관적 건강상태1			.738
주관적 건강상태5			.703
주관적 건강상태6			.622
주관적 건강상태4			.612
주관적 건강상태7			.591
주관적 건강상태3			.569
Eigen-Value	5.848	4.365	3.219
Explained Variance(%)	27.846	20.786	15.327
Variance Criterion(%)	27.846	48.632	63.959
Cronbach Alpha	.959	.881	.783

KMO=.863, Bartlett's $\chi^2=3744.792$ ($p=.000$), $df=210$

Alpha) 기준치 ≥ 0.6 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측정 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 가운데 한 요인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으며, 그 결과 $KMO=.906$, Bartlett's $\chi^2=3780.562$ ($p=.000$), $df=171$ 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온라인정보원 신뢰도의 경우 모두 7개의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Eigen-value=5.053, 설명분산 26.595%로 나타나 온라인정보원 신

뢰도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경우 7개의 관련 문항들로 구분되었으며, Eigen-value=4.860, 설명분산 25.580%로 나타나 자기효능감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 문항 6 '나의 건강조언자(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기타 건강전문가 등)들은 내가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기를 추천한다', 문항 7(평소 이용하는 건강 관련 기관(예: 병원, 보건소 등)에서 나에게

<표 6>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Name of Variable	Component		
	1	2	3
온라인정보원 신뢰도5	.825		
온라인정보원 신뢰도4	.824		
온라인정보원 신뢰도3	.806		
온라인정보원 신뢰도6	.763		
온라인정보원 신뢰도7	.756		
온라인정보원 신뢰도2	.699		
온라인정보원 신뢰도1	.605		
자기효능감4		.834	
자기효능감6		.780	
자기효능감1		.773	
자기효능감7		.727	
자기효능감2		.724	
자기효능감3		.686	
자기효능감5		.596	
사회적 지지2			.881
사회적 지지1			.818
사회적 지지3			.802
사회적 지지5			.665
사회적 지지4			.563
Eigen-Value	5.053	4.860	3.644
Explained Variance(%)	26.595	25.580	19.178
Variance Criterion(%)	26.595	52.176	71.354
Cronbach Alpha	.938	.903	.899

$KMO=.906$, Bartlett's $\chi^2=3780.562$ ($p=.000$), $df=171$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기를 권장한다) 문항이 다른 요인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삭제 후 모두 5개의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igen-value=3.644, 설명분산은 19.178%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명명(Naming)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두 크론바 알파(Cronbach Alpha) 기준치인 ≥ 0.6 을 충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수 가운데 한 요인인 기술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KMO=.904, Bartlett's $\chi^2=3401.722(p=.000)$, $df=78$ 로 나타나 높은 수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의 경우 모두 7개의 관

련 문항들로 구분되었으며 Eigen-Value=5.371, 설명분산은 41.317%로 나타나 디지털 역량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리터러시 교육 문항 1(나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교육내용, 주관기관 등))이 디지털 역량요인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삭제 후 6개의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igen-Value=5.029, 설명분산은 38.683%로 나타나 리터러시 교육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 관련 신뢰도 분석에서 모두 크론바 알파(Cronbach Alpha) 기준치인 ≥ 0.6 으로 밝혀짐으로써 측정 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기술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Name of Variable	Component	
	1	2
디지털 역량2	.881	
디지털 역량3	.879	
디지털 역량4	.873	
디지털 역량1	.867	
디지털 역량7	.848	
디지털 역량5	.817	
디지털 역량6	.791	
리터러시 교육4		.928
리터러시 교육5		.904
리터러시 교육3		.901
리터러시 교육6		.876
리터러시 교육7		.873
리터러시 교육2		.791
Eigen-Value	5.371	5.029
Explained Variance(%)	41.317	38.683
Variance Criterion(%)	41.317	80.000
Cronbach Alpha	.950	.950

KMO=.904, Bartlett's $\chi^2=3401.722(p=.000)$, $df=78$

4.3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관심도($r = -.135, p < .05$) 및 리터러시 교육($r = -.170,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건강관심도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r = .652, p < .01$)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온라인정보원 신뢰도($r = .517, p < .01$), 사회적 지지($r = .529, p < .01$), 디지털 역량($r = .439, p < .01$), 리터러시 교육($r = .478, p < .01$),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r = .503, p < .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온라인정보원 신뢰도($r = .671, p < .01$)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지지($r = .535, p < .01$), 디지털 역량($r = .640, p < .01$), 리터러시 교육($r = .417, p < .01$),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r = .650, p < .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정보원 신뢰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지($r = .657, p < .01$)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r = .635, p < .01$)로 분석되었다.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는 사회적 지지($r = .556, p < .01$), 디지털 역량($r = .588, p < .01$), 리터러시 교육($r = .588, p < .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선정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을 때, 대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총 10개(상위가설 3개, 하위가설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 가운데 과연 어떤 요인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상관관계

요인명	1	2	3	4	5	6	7	8
주관적 건강상태1)	1							
건강관심도2)	-.135*	1						
자기효능감3)	.036	.652**	1					
온라인정보원 신뢰도4)	-.012	.517**	.671**	1				
사회적 지지5)	-.068	.529**	.535**	.657**	1			
디지털 역량6)	-.011	.439**	.640**	.343**	.334**	1		
리터러시 교육7)	-.170**	.478**	.417**	.429**	.336**	.451**	1	
노인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8)	-.019	.503**	.650**	.635**	.556**	.588**	.588**	1

* $p < .05$, ** $p < .01$

〈표 9〉 건강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기술적 요인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

가설	요인명	1단계			2단계			3단계			가설 채택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539	.423		1.275	.204	.072	.348		.207	.837	-1.450	.148		
건강적 요인	H1														
	H1.1	.071	.082	.050	.866	.387	-.016	.067	-.011	-.231	.818	.796	.427		
	H1.2	.681	.077	.509	8.850	.000**	.060	.087	.045	.687	.493	-.853	.394		
심리적 요인	H2														
	H2.1						.441	.090	.354	4.897	.000**	.194	.038*		
	H2.2						.316	.086	.263	3.693	.000**	.293	.000**		
	H2.3						.171	.065	.170	2.645	.009**	.167	.004**		
기술적 요인	H3														
	H3.1											.227	.052	4.334	.000**
	H3.2											.279	.050	5.597	.000**
통계량		$R = .505, R^2 = .255, Adj R^2 = .249, F = 39.213, p = .000$			$R = .717, R^2 = .514, Adj R^2 = .503, F = 47.764, p = .000$			$R = .795, R^2 = .631, Adj R^2 = .650, F = 54.823, p = .000, Durbin-Watson = 1.865$							

* $p < .05$, ** $p < .01$

먼저 1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건강적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를 투입하였으며,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건강적 요인에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를 추가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 모형은 앞의 2단계 모형에 기술적 요인인 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적 요인으로만 구성된 1단계 모형에서는 건강적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beta = .050, p = .387$)와 건강관심도($\beta = .509, p < .01$) 중 건강관심도만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건강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노년층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는 높아짐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25.5%로 나타났다.

건강적 요인에 심리적 요인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는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beta = .354, p < .01$), 온라인정보원 신뢰도($\beta = .263, p < .01$), 사회적 지지($\beta = .170, p < .01$)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인들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51.4%로 파악되었다.

2단계 모형에 기술적 요인을 추가한 최종적인 3단계 모형에서는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beta = .155, p < .05$), 온라인정보원 신뢰도($\beta = .243, p < .01$), 사회적 지지($\beta = .166, p < .05$) 요인 모두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는 높아짐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온라인정보원 신뢰도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가설 채택 결과를 알아보면, 본 연구가설인 상위가설 H.2와 하위가설 H.2.1, H.2.2, H.2.3은 채택되었다.

또한, 최종 3단계 모형에서는 기술적 요인인 디지털 역량($\beta = .244, p < .01$)과 리터러시 교육($\beta = .283, p < .01$) 요인 모두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디지털 역량과 리터러시 교육이 증가할수록 노년층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결과이다. 두 개의 기술적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리터러시 교육이 디지털 역량보다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가설 H.3과 하위가설 H.3.1, H.3.2는 채택되었다.

최종 3단계 모형의 본 회귀식은 63.1%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Durbin-Watson이 1.865로 나타나 기준치인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잔차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검증하는 Durbin-Watson의 값이 2 근처이면, 회귀분석의 잔차(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서 오차의 독립성이 잘 지켜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다중공선성 문제(설명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최종 3단계 모형의 가설 채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에 대한 가설(H1, H1.1, H1.2)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단순히 건강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관심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활동은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상태나 건강에 관한 관심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적인 요인 이외의 다른 심리적, 기술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설(H2, H2.1, H2.2, H2.3)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정보원의 출처를 신뢰할수록, 사회적 관계 맥락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수록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및 공유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성공적인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 경험 제공,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온라인 건강정보 플랫폼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이 있으며, 노인들 간에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건강정보 공유 행동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가설(H3, H3.1, H3.2)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정보나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활동이 활발해짐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정보원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기에 반드시 노년층의 비판적인 정보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 능력과 교육적 기반 위에서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행동에 있어서 심리적, 기술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자기효능감, 신뢰, 사회적 맥락, 디지털 활용능력 등 심리적·환경적 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노인 세대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과 기술 교육의 병행적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5 성별에 따른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총 232명)의 성별에 따른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

독립변수	남성(n=77)					여성(n=155)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1.251	.650		-1.925	.058	-.245	.375		-.654	.514
건강적 요인	.164	.097	.135	1.686	.096	-.009	.077	-.006	-.120	.905
	.125	.150	.079	.833	.408	-.139	.095	-.109	-1.462	.146
심리적 요인	.070	.181	.055	.384	.702	.273	.111	.220	2.455	.015*
	.220	.148	.162	1.490	.141	.300	.095	.259	3.146	.002**
기술적 요인	.185	.097	.173	1.911	.060	.150	.071	.152	2.106	.037*
	.152	.105	.181	1.444	.153	.260	.063	.265	4.152	.000**
	.429	.111	.371	3.865	.000**	.248	.057	.265	4.323	.000**
통계량	$R^2 = .611, Adj R^2 = .571$ $F = 15.480, p = .000, Durbin-Watson = 1.884$					$R^2 = .656, Adj R^2 = .639$ $F = 39.996, p = .000, Durbin-Watson = 2.065$				

* $p < .05$, ** $p < .01$

먼저 노년층 남성(77명)의 경우, 기술적 요인의 리터러시 교육($\beta=.371, p < .01$) 요인만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정적(+)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서 고령층 여성(155명)의 경우, 심리적 요인의 자기효능감($\beta=.220, p < .05$), 온라인정보원 신뢰도($\beta=.259, p < .01$), 사회적 지지($\beta=.152, p < .05$), 기술적 요인의 디지털 역량($\beta=.265, p < .01$)과 리터러시 교육($\beta=.265, p < .01$) 요인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노년층 여성집단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 가운데 리터러시 교육 요인이 건강정보 공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디지털 역량,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순으로 집계되었다.

성별에 따른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된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층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간에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노령층 남성의 경우에는 기술적 요인의 리터러시 교육만이 유일하게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을 넘어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활용하는 능력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고

령층 남성집단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심리적 요인보다는 건강정보 자체의 가치와 활용능력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노령층 여성의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과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 모두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령층 남성에게 비해서 훨씬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령층 남성의 경우, 실용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건강정보의 선별적 수용 능력 및 정보 활용능력 중심의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령층 여성의 경우에는 기술적 역량 향상과 함께 심리적인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리터러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며, 건강정보 활용 및 공유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 기반 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요인은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

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건강적 요인(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 및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은 모두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노년층 남성집단은 기술적 요인의 리터러시 교육만이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고령층 여성의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온라인정보원 신뢰도, 사회적 지지)과 기술적 요인(디지털 역량, 리터러시 교육) 모두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도출한 시사점 및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의 핵심은 노인 세대의 온라인 건강정보 해석 및 공유 동기 구조는 다른 연령층 집단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슬 외(2016)의 연구에서 고령층은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현미 외(2023)는 자녀와의 소통이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동기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맥락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즉, 노년층은 단순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동기로 이어지지 않

며,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리적 지원과 기술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연구로서 안순태와 정재선(2019)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지 않은 건강관심도는 노령층의 온라인 건강정보 탐색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건강관심도가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행동 증진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건강관심도를 높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파워먼트 강화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맞춤형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남성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 확대가 중요하지만, 노년층 여성의 경우에는 기술적 역량 향상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한 포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이가 고령층의 디지털 건강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접근성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대한 온라인 건강정보 중에서 적합한 정보원을 검색하는 능력과 함께 건강정보의 선별적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Moore와 Hancock(2022)이 수행한 한 실험 연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후 노인의 정보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노인 대상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분석의 시사점은 향후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회적 지지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서비스) 기획에 있

어 중요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기초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계적 검증을 통한 양적인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로서 질적인 연구방

법(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한 관련 연구를 제안하며, 이는 다른 연령층과 다르거나 노년층 성별에 따른 보다 깊이 있고 총체적인 고령층의 요구와 반응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슬, 조주희, 안은미, 조승연, 박현영 (2016). 노령층에서의 건강정보이용 현황 조사 연구: 성별 및 지역에 따른 건강정보이용 경로와 신뢰 정도 분석. 보건사회연구, 36(2), 454-479.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2.454>
- 권하나, 정정주, 짱스차오 (2025). 디지털 조력자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구성유형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9(1), 5-57.
<https://doi.org/10.47020/JLC.2025.02.29.1.5>
- 근효동 (2022). 정보원 신뢰도, 건강 관심도, e-헬스 리터러시와 틱톡 건강 정보 이용 의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김나은 (2023).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관리 모바일 앱 이용의도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김유성 (2023). 노년층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 수용 저항성 관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현미, 박미혜, 조재희 (2023). 노인의 온라인 건강정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헬스 리터러시, 온라인 사회적 관계,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역할에 관한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40(4), 101-146. <https://doi.org/10.36494/JCAS.2023.12.40.4.101>
- 류현주 (2019).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eHealth literacy)과 건강행위와의 상관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주리 (2011). 인터넷 건강지식 공유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박지혜 (2022). 노인의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태백시 평생학습관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은지 (2019). 노인의 신체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자기개념이 주관적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송지현 (2019).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e-헬스 리터러시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순태, 강한나, 정순돌 (2018). 노인들의 건강 관련 모바일 앱 수용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의 역할. PR연구, 22(6), 53-74. <https://doi.org/10.15814/jpr.2018.22.6.53>
- 안순태, 정재선 (2019). 노인들의 건강 정보 수용: 임파워먼트의 역할. 한국광고홍보학보, 21(4), 273-299. <https://doi.org/10.16914/kjapr.2019.21.4.273>
- 안중순 (2024).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정보기기 활용도의 매개효과 연구. OUGHTOPIA, 39(1), 211-235. <https://doi.org/10.32355/OUGHTOPIA.2024.06.39.1.211>
- 오설미 (2021). 노인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경자 (2024). 스마트미디어시대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이 노인층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주연 (2024).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활동과 정보화기기 활용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생활환경학회지, 31(4), 258-269. <https://doi.org/10.21086/ksles.2024.08.31.4.258>
- 장효성 (2024). 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활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중국 노년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유빈 (2021).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조아진 (2010). 노인의 사회적지지 및 건강증진행위가 인지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지경미 (2020). 노인의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이 사회적 지지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최문선 (2023). 노인의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은지 (2024). 중장년층의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최지영 (2015). 온라인 건강정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Bachofner, Y., Seifert, A., Sepahniya, S., & Fabian, C. (2024). Explor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among older adults: a mini-review about acceptance, potentials, and barriers. *Frontiers in Digit Health*, 6. <http://doi.org/10.3389/fgth.2024.1336430>
- Cotten, S. R., Anderson, W. A., & McCullough, B. M. (2013). Impact of internet use on loneliness and contact with others among older adults: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2), e39. <https://doi.org/10.2196/jmir.2306>
- Fang, Z., Liu, Y., & Peng, B. (2024). Empowering older adults: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n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1748). <http://doi.org/10.1057/s41599-024-04312-7>
- Moore, R. C. & Hancock, J. T. (2022). A digital media literacy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improves resilience to fake news. *Scientific Reports*, 12(6008). <https://doi.org/10.1038/s41598-022-08437-0>
- Zhu, X. & Li, C. (2024). Information support or emotional support? Social support in onlin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mong Chinese older adults. *Healthcare*, 12(1790). <https://doi.org/10.3390/healthcare1217179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Jong-Soon (2024).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us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OUGHTOPIA*, 39(1), 211-235. <https://doi.org/10.32355/OUGHTOPIA.2024.06.39.1.211>
- An, Soontae & Jeong, Jae-Seon (2019). Acceptance of health information by elders: the role of empowerment.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1(4), 273-299. <https://doi.org/10.16914/kjapr.2019.21.4.273>
- An, Soontae, Kang, Hannah, & Chung, Soondool (2018). Older adults' adoption of health-related mobile application: the role of empowerment.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2(6), 53-74. <https://doi.org/10.15814/jpr.2018.22.6.53>
- Choi, Eunji (202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Mobile Healthcare Application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Choi, Ji-Young (2015). Factors which Affect on Online Health Information Accepta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Choi, Moon-Sun (2023). The Effect of Digital Competenc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Gyo, Hyodong (202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ource Reliability, Health Interest, e-Health Literacy and TikTok Health Informa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Ji, Kyung-mi (2020). The Effect of the Elderly's Digital Literacy Ability on Social Support and Political Efficacy.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Jiang, Xia-xing (2024).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A Study on the Elderly in Chin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in, Xian-mei, Piao, Mei-hui, & Cho, Jaehee (2023). Examining health information shar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a family communication approach.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40(4), 101-146. <https://doi.org/10.36494/JCAS.2023.12.40.4.101>
- Jo, Ah-Jin (2010). The Effect of Subjective Health-Status of Social Support of the Older Gener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Jung, Youbin (2021).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Person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 Kim, Na-Eun (2023). A Structural Model of Use Intention the Health Management Mobile App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 Kim, Yu-Seong (2023). A Study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Digital Healthcare in the Elderly: In Terms of Digital Technology Acceptance Resista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Koo, Seul, Cho, Juhee, Ahn, Eunmi, Cho, Seungyeon, & Park, Hyun-young (2016). Use of health information among older adults: trust and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by gender and reg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2), 454-479.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2.454>
- Kwon, Ha-Na, Chung, Chung-Joo, & Zhang, Shichao (2025). The impact of digital assistants on the digital divid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household composition types. *Locality & Communication*, 29(1), 5-57. <https://doi.org/10.47020/JLC.2025.02.29.1.5>
- Lee, Joo-Yeon (2024). The effect of elderly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ability.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31(4), 258-269. <https://doi.org/10.21086/ksles.2024.08.31.4.258>
- Lee, Kyung-Ja (2024). A Study on the Effects of Digital Device Literacy Training 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in the Smart Media Er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Oh, SeolMi (2021). The Effect on Digital Information Level on the Intention to Use New Technology among Older Adults: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Technical

- Self-Efficacy and Util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Park, Ji-Hye (202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on the Digital Competence of the Elderly: Focused on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Lifelong Learning Center in Taebaek.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Juri (201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and Behavior of Health Knowledge Sharing on the Internet.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Ryu, Hyunju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e-Health Literacy and Health Behavior in Elderly Peopl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ong, Eunji (2019). Effects of Physical Self-Concept from Physical Activity of the Elderly on Subjective Health Status,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Song, Ji-Hyeon (2019). The Effects of e-Health Literac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n Health-seeking Behavior of Elderly Using the Internet in the Communit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